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105호_발행일: 2004년 11월 21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_02-416-5181_www.pcltv.org

기사제보: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수능일 학부모기도회

수능시간표에 맞추어 찬양드리며 기도해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80여명 학부모 참석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기도모임이 수능 당일 날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까지 장로회신학대학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있었다. 날씨가 맑고 춥지 않았는데도 이곳에 모인 칠십 여명의 학부모들의 마음은 긴장 돼 있었다. 수험생들과 같은 환경으로 기도에 집중하려고 첫째 시간부터 다섯째 시간까지 수능 시간표대로 찬양드리고 기도했다. 우리의 자녀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학부모들은 걱정을 내려놓고 담대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 시키셨다. 욕심으로 세워진 계획성취에 몰두해 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게을렀던 점들을 회개하게 하셨다. 인간적인 걱정, 교만,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 품안에 거함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자녀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겠다고 기도했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셨다.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는 기쁘게 찬양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이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했다. 김현령 전도사와 박의일 전도사, 이호 목사가 번갈아 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했고, 다른 목사님들이

속속 도착하여 학부모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 이 시간 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회를 마쳤다. 이 기도 모임은 수능 후에도 매주 토요일 마다 10시 30분 3층 초등부실에서 계속되니 성도여러분들의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한해 마무리, 새 임원진 선출

권사회는 2004년도 마지막 월례회를 11월 16일 오전 11시 제3집회실에서 1년 동안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토의를 마무리한 후 새 임원진도 선출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먼저 이호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과 함께 "순응과 극복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들 모두 충분히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했다. (3면에서 계속)



11월 28일 고등부 징검다리 바자회

고등부는 2001년부터 징검다리 운동을 해오고 있다. 징검다리 운동이란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나눔으로 타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말한다. 고등부의 학생과 교사는 매주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훈련을 한다.

어떤 학생은 핸드폰카드로 할인된 영화 값의 일부를 어떤 학생은 남자친구와의 100일된 기념으로 친구들이 준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모여진 작은 정성들은 우리 주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된다.

(2면에서 계속)



어와나, 어린이 100여명 신청해

어와나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소예배실이 자리가 부족할 만큼 어와나 설명회에 많은 불티단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는 가운데 잘 마무리 되었다.

1층 소예배실의 좌석수가 300백석인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참여의 열의가 대단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학부모 설명회에 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참여한 모두에게 다과를 전달하고 어와나 클럽 담당인 유영안 전도사의 어와나 클럽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 지난 4개월간 기도로 섬기며 준비해 온 교사들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있었다.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인다워서가 약 120부 정도 배포 되었고

90부가 즉석에서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주일에 제출할 학부모들을 감안하면 약 105명 정도의 불티단원들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아세례교육

아름다운 가정의 기초는 부부



11월 14일(주일) 2번째 유아세례교육을 가졌다. 유아세례교육을 받는 총인원은 15쌍의 부부로 5개조로 주퍼성이 되었다. 부

부의 장점 20가지를 기록하여 조별로 나누고 대표로 한 부부가 발표를 하게 되었다. 아내의 장점 중 요리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가스오브레인지 받았던 것, 남편의 장점 중 준법정신 등을 들어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희성목사의 아름다운 가정의 기초다지기 강의가 이어졌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부간의 따뜻한 대화와 삶의 패턴으로 환경이 결정되어진다. 그러기에 부부의 관계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부간의 사랑과 하나됨, 친밀함에 있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중요요소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간단히 개인의 스타일 조사하여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등으로 서로의 스타일을 알고 이해해야 할 것들을 검토해보았다.

다음 주 11월 28일 주일날 3번째 세례교육 시간은 '자녀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가지고 자녀의 태어남과 성장에 있어 느낀 것과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비전 등에 대한 각증문을 제출하게 된다.

어렵던 로마서가 이젠 너무 쉽게 이해되요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 여러 가지 양육 클래스 과목중 로마서가 있다. 로마서는 한영미 권사를 반장으로 하여

현재 20여명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5층 찬양연습실에서 모여 중등부를 담당하는 박의일 전도사와 함께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 9월 17일에 첫 시간을 가진 로마서는 11월 19일 현재 10회에 걸쳐 로마서 8장까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는 8장을 통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에 있어 궁극적인 동력과 주체가 되신다. 은혜와 성령은 칭의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성화의 궁극적 주체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은 실상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우리의 깊은 존재에 부딪혀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올리면 그 동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서서히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다고 로마서를 인도하는 박의일 전도사는 강조한다.

로마서 종강은 12월 17일에 할 예정이며 앞으로 4번의 시간이 더 남았다. 특별히 앞으로 3주간은 로마서 9-11장을 중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함께 고민하며 이 시대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이다. 먼 거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침에 한 걸음에 달려오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거룩해 보이는 금요일 아침이다.

목요모임 '양정하선교사' 메시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해 주세요

목요모임 예배인도하는 예수전도단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11월 11일 중예 배설을 메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열정적인 찬양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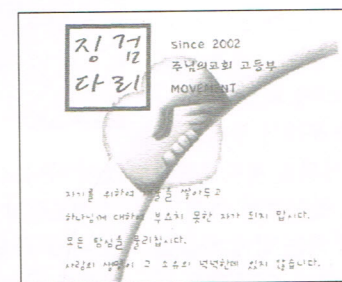
이번 목요모임 말씀인도자는 서남아시아에서 개척사역을 하고 있는 양정하 선교사이다. 선교사는 한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이 되고 안정이 되어가면 떠나 새로운 개척의 땅으로 옮겨 지금이 6번째 개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선교사로 '개척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여 선교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은사를 말해주었다고 하며 따스하게 웃었다. 그는 먼저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는 스리랑카에 대한 선교실정과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스리랑카는 137개의 교회가 불타고 목사가 매 맞는 극한 상황이 처해 있었다. 지금 다시 선교가 되고 있어 더 굳건한 교회가 설 것이며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히말라야산맥에 있는 네팔은 예수 믿으면 감옥을 가야해 선교사들이 수감생활을 경험했는데 근래에 이 법이 폐지되어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큰 나라이며 공산주의가 속히 물러가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신흥지로 뜨고 있는 몰디브도 교회가 없고 선교사도 없다. 선교사임을 숨기고 전문직으로 들어와 선교하다 유럽인 선교사 7명이 전원 감옥으로 갔으

나 강대국이므로 풀려날 수 있었다. 교회들이 생기도록,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통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전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민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실패하는 우리로 한 번 더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은혜로시다'는 것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주기를 좋아하시는 성품이셔서 우리가 받고싶은 것보다 더 주고 싶어하시는데 못주니까 안타까워하신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길 원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이 평범하게 살다 죽는다. 신앙생활에 성실한 사람이 믿음으로 히려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독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사랑의 은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 갈렙이 선택한 산지는 사단의 원칙이 작용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란 이름의 헤브론으로 바뀌었다. 아름답고 안일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보이시고 개발, 사용하시게 될 것이다. 13년전 선교사가 되면서 원수에 속한

사람을 뺏어오고 사단의 원칙을 부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예수를 한 번, 아니 한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전에 주셨던 비전을 가지고 안타까움이 들어 기도하게 되는 그 곳에 서있었다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1면에 이어서)

11월 28일 고등부 징검다리 바자회



고등부는 매월 장애후 가정과 단체, 고등학생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 여름수련회에서는 강원도 홍천에 삼덕원을 방문, 그곳에 모여 사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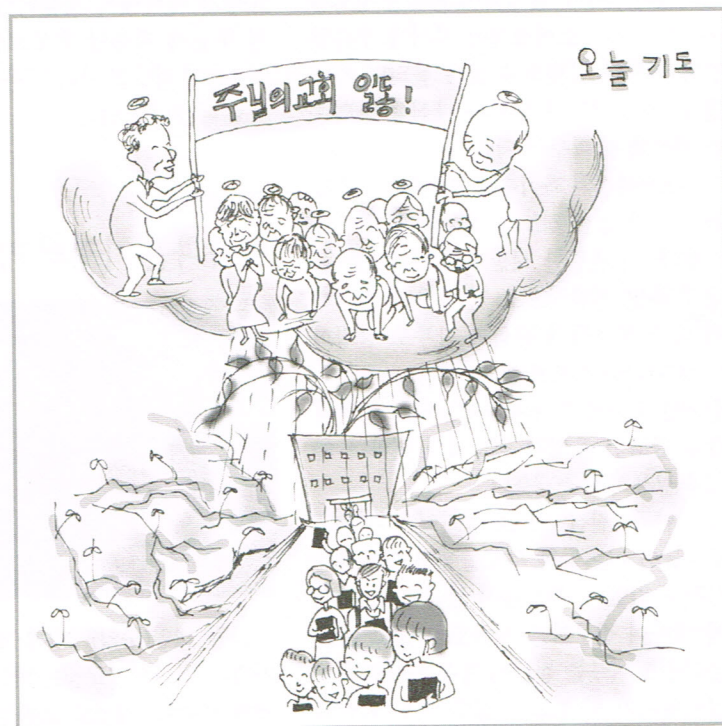
장애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삼계탕을 대접하고 예쁜 웃도 선물할 수 있었다. 고등부는 징검다리 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2회 징검다리 바자회를 가진다. 바자회의 물품은 고등부 친구들의 헌물과 징검다리기금으로 준비되며 얻어진 수입금은 전액 징검다리로 적립된다. 이번 가을 바자회는 28일 주일에 교회 앞뜰에서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특별한 만남, 나의 구역식구' / 김희수집사 소개

몇 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우성으로 이사와보니 주님의교회가 자리잡고 있었다. 같은 아파트 윗 층 집사와의 엘리베이터에서의 만남을 통해 소개받게 된 1-5구역. 구역식구들 각자가 뚜렷이 다른 개성으로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똑같은 하나인 것 같다. 눈물, 감성적 코드가 같아서일까? 늘 구역식구 하나하나를 기도와 사랑으로 챙기며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는 맛있는 양식으로 배불리 채워주는 큰 언니 같은 구역장 김영미 집사, 항상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봉사하며 애쓰시는 권철 홍정미 집사, 누구에게 질 새라 먼저 기도하고 배풀고 나눔을 아끼지 않는 집사들, 모두가 감사고 은혜다.

불교 집안으로 시집과 성경책을 몰래 감추며 이른 새벽 교회를 다니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지난 시간들은 신앙으로 이겨내고 나니 이제는 떼뻗

하고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교회와 문동학 담임목사와 구역식구들은 내 삶의 멘토가 되어 주었다. 우리 구역식구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믿음의 기간 중 삼십분의 일도 되지 않지만 신앙의 깊이는 삼십 배가 넘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구역 공과책 '목적이 있는 삶'은 내 인생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나에게 많은 변화와 은혜와 내안에서의 은사를 찾게 만들어 주었다. 얼마 전 울긋불긋 오색의 유난히 예쁜 단풍아래서 낙엽을 밟으며 드렸던 이집사의 양평 별장에서의 전원(?)구역 예배는 더 많은 영적 교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행복한 예배였다. 내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랜 시간 우리 구역 식구와 함께 따뜻한 사랑과 꿈을 나누는 것이며 주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청년부 찬양대회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부의 '재롱잔치'



11월 17일 주일, 4부 예배를 마치고 지하 중강당에서는 '청년부 기수별 찬양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주님을 향한 청년부의 '재롱잔치'라고 할 수 있다.

또래들과 같이 그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서 느낀 은혜를 화려하지는 않아도 마음을 다해 아가자기 하게 표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모여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눈으로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나누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기들끼리 머리를 짜내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정을 자연스럽게 쌓는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매력이다.

청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넘치는 열정을 기수별로 맞짱맞는 목소리, 즐거운 몸짓, 때로는 고요한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찬양을 이어갔다.

대상을 탄 11기(81년생)의 경우는 '하늘과 땅 즐거워 하라'라는 곡을 '닭띠'인 그들의 특성을 살려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날개짓' 율동을 만들어 위습으로 표현했는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한편 모자춤을 선보인 10기(80년생)는 종이를 이용해서 직접 소품 모자를 만드는 열성을 보였다.

8기(78년생)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끈끈한 동기 속에서 찬양, 율동과 연주를 모두 직접 해내는 '노익장' (?)을 과시했다.

또 인기상을 탄 13기(83년생)는 교복 의상을 준비해서 감쪽한 몸짓을 무난히 소화하며 그날 같이한 사람들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김성관 목사, 양동훈 장로, 부장집사, 권사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청년들은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이가 없어서 청년부 활동에 무관심했던 친구들에게는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주고, 좋은 추억을 선물함으로써 주일 오후 시간을 교회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결코 뒤질 것이 없음을 아는 기회가 되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웃음의 시간에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1면에 이어서)

권사회 한해 마무리,
새 임원진 선출

일기예보에 내일은 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산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차 올 인생에 대한 인생예보에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순응의 지혜와 또한 말씀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극복의 지혜가 있어야 함을 전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시련의 밤이 올 때 또는 고난의 겨울을 맞이할 때 사람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준비되어 있으면 순응하게 되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용기가 생기며 기쁨도 따르게 된다는 것.

"당신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물음에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따뜻한 어머니이듯이 교회에서도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교우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부르심에 순응과 극복의 지혜를 배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권사들이 되자고 말씀을 맺고 예배를 마친 후 월례회를 갖고 그 간의 서기 보고 및 회계보고가 있었다.

또 내년도에 수고할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선출된 임원은 회장 김영아 권사, 부회장 김경희 권사, 총무 박경옥 권사, 서기 이지연 권사, 회계 서은숙 권사이다. 월례회를 마친 후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진들이 뷔페로 점심식사까지 마련해주어 이호 목사와 모두 맛있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며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권사들도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참여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동참하는 권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월례회를 마쳤다.

초등부

교사와 아이가 함께 댄 미니체육대회



지난 주일(11월14일) 초등부는 야외에 배와 미니체육대회를 실시했다.

정신여고운동장 한편의 작은 공간에서 치루어졌고 늦가을이라 다소 쌀쌀한 날씨를 걱정했지만 너무 좋은 날씨와 쌓인 낙엽의 운치로 인해 은혜롭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이 주신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올려진 예배는 산만한 분위기에 불구하고 선생님들과 아이들 마음에 멋진 자연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올랐다. 피구게임과 줄넘기 2가지 종목으로 거행된 미니체육대회는 교사들과 아이들이 하나되어 모처럼 땀 흘리며 웃고 즐

긴 시간이었다.

3, 4학년별로 홀수반, 짝수반 두 팀으로 나누어 시합한 피구대회에서는 3, 4학년 공히 홀수반팀이 2:1로 승리를 하였고 반별대항으로 이루어진 단체(6명)줄넘기 대회는 연습시간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번을 기록한 4학년 2반과 5반이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강한 피구공에 맞서 잠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공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는 교사들,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던 시간들.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며 땀 흘리고 하나되는 감사의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많이 나누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
다만 우리의 수용력이 변할 뿐

11월 18일(목), 윤덕영목사가 인도하는 성령의 학교 시간에는 '김현령 전도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성령에 관한 찬양 감상으로 수업을 시작

하여 로마서8장 1절과 2절을 읽으며 '성령'이나 '믿음'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기 위한 원리들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약속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수용력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강의 중에 진행된 '김현령 전도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이어졌다.

호흡으로서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들었다. 그리고 비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험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회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의의 끝부분에서는 '성령의 학교'를 수강하며 느꼈던 점을 적는 중간 평가시간이 있었다.

많은 성도들이 이번 클래스를 통해 그동안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성령에 관해 더욱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갈 수 있는 수업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교회소식

■ 알려 드립니다

1.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가 11월 29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 주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 22:20)

- 설교: 문동학 목사

- 특송: 11월 29일(월) - 당회원

11월 30일(화) - 청년부

12월 1일(수) - 구역지도자

12월 2일(목) - 권사회

12월 3일(금) - 안수집사회

■ 모집합니다.

1. 2005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는 분을 기다립니다.

-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교사대학을 수료했거나 2년내에 수료하실 분

2. 어와나(AWANA) 볼티단 II를 위한 교사를 모집합니다.

봉사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3. 도서관에서 주일에 책정리하실분 10명을 모집합니다.

■ 모입니다.

1. 호스피스부 모임이 27일(토) 오전 10시 30분 5층 찬양연습실에서 있습니다.

모임후 루디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2. 10여선교회 모임이 24일(수) 오전 11시 설만한 물가에서 있습니다.

모임 후에 인천 진생도교회를 방문합니다.

■ 교우소식

1. 박인호 안수집사 부인 방혜준집사(5교구 12구역)가 11월 15일 [지세포세교시](삼성점)을 개업하며 개업예배를 드렸습니다.

2004년 성탄발표회

선물이라는 주제로 교회학교에서 오랫동안 정성껏 준비해

2004년 12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에는 수요일 예배가 대예배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날은 교회학교 주관으로 각급 부서에서 정성껏 준비한 다양하고 알찬 성탄발표회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성탄 발표회 때 커다란 주제는 "선물"로서 전체 구성은 크게 2막으로 구성된다.

1막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2막은 예수님께 나를 "선물"로 드려요 라는 소재목으로 구성된다. 고등부는 고등부가 사랑하는 오케스트라와 주제와 관련된 영상 CF를 준비하

고, 유아부는 암송과 찬양, 레인보우는 핸드벨, 유년부는 수화찬양, 유치부는 축하메시지와 찬양, 소년부는 크리스마스 폴카 뮤지컬, 초등부는 어린이 난타, 유아부는 케익 커팅, 중등부는 워십댄스등을 맡아 교회학교가 몇 달전부터 이 행사를 위해 꾸준히 연습해오고 있다.

올 겨울 성탄발표회는 교회학교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하고 의미있게 보내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이 행사에 대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크다.

모테트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본 교회 시온찬양대 지휘자인 박치용 집사님이 단장으로 있는 서울모테트합창단에서 단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반주자) 및 기획실에서 근무하실 사무직원과 경리직원을 모집합니다.

1. 제출기간: 2004년 11월 30일(화) 까지

2. 구비서류: 합창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전화문의

3. 제출처: (137-82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1-10 대항병원B1

전화: 523-7295, 6388-8777

팩스: 522-1102

홈페이지: www.seoulmotetchoir.co.kr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 1시 이후에는 유소년축구클럽 관계로 이동주차하여 주십시오.

3. 도서관(5층) 안내

5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데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